

03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이 재 언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 I. 머리말
- II. 주거유적의 현황과 분포
- III. 주거유적의 시기별 양상
- IV. 주거의 편년과 특징
- V. 맺음말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주거의 분포와 양상

이 재 언 (전라남도문화재단 전남문화재연구소)

I. 머리말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연구는 호남지역 내 하나의 지역권으로 구분되며, 호남의 시각에서 취락(김규정 2000, 2013, 2021; 신상호 2007; 김문국 2010; 홍박음 2010a, 2010b; 정다운 2015), 문화상(황재훈 2009; 천선행 2016), 유물(황재훈 2007; 송영진·김규정 2014; 장지현 2015; 김규정 2017a, 2017b), 생업경제(김민구·권경숙 2010, 권경숙 2011; 박서현 2016) 측면에서 검토가 이루어졌다. 유역별 소지역단위의 연구에서도 취락의 분포, 편년, 문화상 등(박수현 2004; 이종철 2012; 김승욱 2016; 천선행 2019; 김규정 2020) 기존 연구시각에서 접근이 이루어졌다.

영산강유역의 연구는 분묘(이영문 1993; 선재명 2001; 김승근 2002; 平郡達哉 2004; 조진선 2004; 황재훈 2006; 홍박음 2015; 강진표 2016)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주거·유물 등의 연구(김경철 1997; 황재훈 2005, 2009; 성경당 2005; 김민구 2010; 강동석 2018)는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지역별 유적의 편중, 편년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표유물의 부재 등 다양한 여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경기·호서·영남지역에서는 조사 성과를 토대로 일련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논의되는 것에 비해 영산강유역은 자료가 축적된 상황임에도 상대적으로 미진한 편이다.

청동기시대 연구경향은 돌대문·점토대토기를 중심으로 한 조·전기, 중·후기 시기구분을 비롯한 광역 편년구축(한국청동기학회 2013; 한국고고환경연구소 2016)과 생산·유통·소비체계(이기성 2006; 조대현·박수현 2013; 황창한 2019; 이종철 2017), 사회경제적 변화(김장석 2005; 허의행 2011, 2015; 김범철 2014; 우정연 2014; 손준호 2008, 2019)에 초점을 맞추며 청동기시대 사회변동에 다각도로 접근하고 있다. 호남지역의 연구에서도 절대연대, 석기 및 토기의 조합상과 주거형태와 구조 등 기존 연대관에 대한 인식전환과 폭넓은 시각에서 분석의 필요성이 언급되기도 했다(이영문 2014).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영산강유역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서남단을 지칭하며, 공간적 범위는 행정구역상 광주, 담양, 장성, 화순, 나주, 영암, 함평, 무안, 목포가 중심이다. 연구자의 연구관점에 따라 서해안의 영광, 진도, 신안지역과 남해안의 해남, 완도, 탐진강의 강진, 장흥 등이 포함되기도 한다. 이와같이 영산강유역의 공간적범위의 설정에 있어 연구자에 따라 영산강유역 범위에 있어 차이를 보이지만, 산천을 경계로 형성·발전되는 문화를 볼 때 핵심지역은 영산강 본류이며, 이를 중심으로 주거유적의 분포와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¹⁾.

II. 주거유적의 현황과 분포



圖 1. 영산강유역권(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주거유적은 광주 송암동유적(전남대학교박물관 1979)에서 송국리형 원형주거지가 확인된 이후, 현재까지 조사된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수는 조·전기 19개소, 중·후기 88개소이다²⁾(표 1).

주거유적의 분포를 보면 영산강 상류지역을 중심으로 밀집도가 높게 확인된다. 시기별로 조·전기유적은 영산강 중·상류(담양·광주·나주)를 비롯한 황룡강, 함평천에서 확인된다. 중·후기유적은 지류에 해당하는 지식천, 영암천까지 범위가 확대되며 이전 시기에 비해 주거 수는 4배 이상 증가한다.

表 1. 영산강유역 주거유적 현황

유역별 유적수량 (조·전기/중·후기/기타)	조·전기	중·후기	계	비고(행정구역)
황룡강(2/8/2)	3	39	42	장성
영산강 상류권(7/31/5)	21	245	266	담양, 광주
영산강 중·하류권(5/22/0)	8	222	230	나주, 목포
지식천(0/7/0)	0	24	24	화순
함평천·고막원천(5/18/1)	18	133	151	함평, 무안
영암천(0/2/0)	0	16	16	영암
계(19/88/8)	50	679	729	

- 1) 영산강은 담양군 용면 용연리 가마골 용추봉(龍湫峰, 584m) 남쪽에서 발원하여, 황룡강, 고막원천, 함평천, 지식천 등을 지류로 삼고 목포를 통해 서해 바다로 흘러나간다. 하천관리지리정보시스템(www.river.go.kr)에 기반하면 함평천 좌측의 무안 및 화순군 일부는 영산강수계에서 제외되나 행정구역상 묶어 검토하였다. 다만 영암천권은 영산강하류에 포함되나 지리적인 환경의 차이로 분리시켜 검토하였다.
- 2) 청동기시대 시간 폭은 기원전 1500~300년, 시기에 따라 2시기, 3시기, 4시기로 구분된다. 문화는 새로운 문화요소들의 수용·유입으로 발생하고, 발전·쇠퇴하면서 소멸하는 단계를 밟게 된다. 이는 발생기(조기)-성장기(전기)-성행기(중기)-쇠퇴기(후기)-소멸기(만기)로 이해되나(이영문 2013), 본고에서는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 편년(청동기학회 2016) 초기-전기-중기-후기 안을 따르며 전개과정상 조·전기, 중·후기 2기로 구분하여 정리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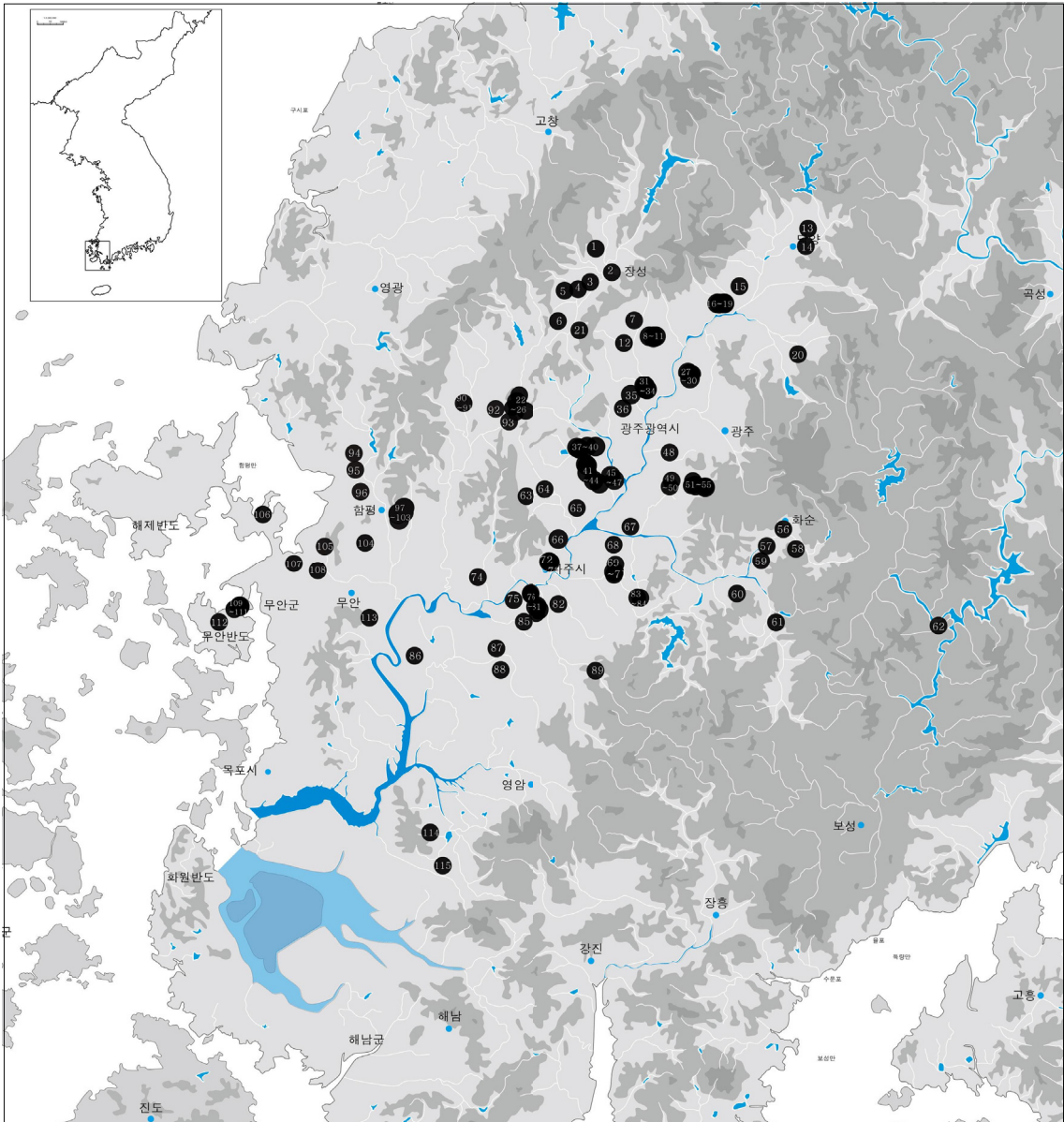


圖 2. 영산강유역 주거유적 분포(유적 번호는 표 3의 연번과 동일)

유적의 입지는 평지(충적지)와 구릉으로 구분된다. 주 분포범위는 해발 10~60m범위이나 입지하는 지역의 지형에 따라 평지(충적지)에 입지하는 유적은 해발 10~20m, 구릉 30~40m, 광주·장성 지역에서는 해발 70~100m의 산지성 구릉입지가 확인된다³⁾.

3) 유적의 입지를 세분하면 산지성 구릉과 구릉 정상부, 사면부, 말단부 및 평지(충적지)로 구분 가능하지만, 입지에 따른 생계의 차이가 뚜렷하지 않는 선행연구(손준호 2019)를 참고하여 구릉과 평지로만 구분하였다. 또한 유적의 입지는 해발 보다 비고가 입지 특징을 파악하는데 유효하다할 수 있지만 상대비고에서 입지별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아 해발고도를 사용한다.

청동기시대 주거배치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전기 유적은 점상·선상취락에서 이후 면상취락이 늘어나는 점(이형원 2009), 후기 유적은 입지에 따라 산지 능선부에는 괴촌·점촌·열촌·환촌형, 사면부에는 열촌·점촌, 구릉부에는 환촌형 취락이 주로 조영되는 취락의 차이를 파악하고, 송국리유형 취락은 환촌형과 광장촌형 2가지 유형으로 변화·발전해 나간다고 판단하였다(이홍중 2007). 영산강유역의 주거의 분포배치는 독립(점촌)·열상·군집(환촌), 부정형의 형태는 확인되지만, 입지에 따른 분포형태는 확연히 구분되지 않는다.

유적의 구성은 주거 단독, 주거+저장시설(수혈, 주공군), 주거+매장유구, 주거+기타(구) 4가지의 구성이 일반적으로 확인되며, 수혈, 매장유구, 구 등이 추가적으로 포함된다. 유적 구성요소의 배치는 주거군과 혼재하거나 분리된 형태로 구분된다.

배치 및 구성요소를 종합하면 조·전기유적에서는 1~2기의 주거가 단독 혹은 열상으로 구성되며, 중·후기유적에서는 5기 내외에서 6기에 이르는 열상이나 군집이 형성되며 수혈, 매장유구가 함께 구성된다. 특히 광주 평동(43기), 나주 장동리(46기), 운곡동(74기), 구기촌(43기), 함평 신흥동(33기) 등 30기 이상의 대형 주거군이 영산강분류와 고막원천에서 확인되며, 나주 장동리와 함평 신흥동유적에서는 전기 주거가 함께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表 2. 영산강유역 주거군 구성요소

유역권 (유적 수)	단독 구성	1 요소			2 요소			3 요소	합계
		주거+ 저장	주거+ 매장	주거+ 기타	주거+저장 +매장	주거+매장+ 기타	주거+저장+ 매장+기타		
황룡강(12)	6	2	2	·	·	·	2	·	12
영산강 상류권(43)	25	5	1	3	1	·	3	5	43
영산강 중·하류권(27)	14	5	·	·	3	2	2	1	27
지석천(7)	4	·	1	·	2	·	·	·	7
함평천·고막원천(16)	8	1	4	·	1	·	1	1	16
무안반도(8)	4	2	1	·	·	·	·	1	8
영암천(2)	1	·	·	·	1	·	·	·	2
계	62	15	9	3	8	2	8	8	115

表 3. 영산강유역권 청동기시대 주거유적

유역	연번	유적명	입지(해발)	총 기수	공반유구	참고문헌
황 룡 강	1	장성 대덕리	구릉(86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2	장성 아은리	구릉(65-85m)	4	지석묘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	장성 장산리2	평지(43m)	4	수혈1, 구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5
	4	장성 환교 I	구릉(51.7m)	5	토광묘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5	장성 서양리	구릉(100-105m)	5	수혈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6	장성 월산리	구릉(45-65m)	2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7	장성 산정	구릉(51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8	장성 삼태리	구릉(45-55m)	11	수혈5	호남문화재연구원, 2016
	9	장성 삼태리 중태	구릉(30-40m)	3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6
	10	장성 삼태리 서태	구릉(41-48m)	5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6
	11	장성 경현사지	구릉(43m)	1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3
	12	장성 월정리Ⅱ	구릉(38-41m)	5	수혈2, 구, 초철토3	호남문화재연구원, 2016
영 산 강 상 류	13	담양 원천리 안골	구릉(18-79m)	7	함정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14	담양 학동리 학동	평지(51m)	2	수혈8, 구3	대한문화재연구원, 2019
	15	담양 성산리	구릉(52m)	3	수혈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16	담양 태목리 I	평지(28-29m)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17	담양 태목리Ⅱ	평지(29m)	17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18	담양 중옥	구릉(30-33m)	8		호남문화재연구원, 2010
	19	담양 중옥리	구릉(44-46m)	1	수혈6, 지상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20	담양 오산	구릉(67m)	2	구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21	광주 오룡동	구릉(32-48m)	1		목포대학교박물관, 1995
	22	광주 덕림동 수성	구릉(40-43m)	1	수혈1, 토1, 구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3	광주 덕림동 북만	구릉(56-57m)	7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4	광주 덕림동 갱이들	구릉(52-53m)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5	광주 덕림동 응유	구릉(51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6	광주 덕림동 울림	구릉(53-56m)	28	지3, 석2, 수혈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27	광주 용두동	구릉(42-52m)	15		전남대학교박물관, 2010
	28	광주 용두동 용두	구릉(56-57m)	2	수혈2	호남문화재연구원, 2019
	29	광주 용두동 거상	구릉(52-54m)	6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30	광주 외촌	구릉(60m)	10	수혈4, 토3, 구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31	광주 성덕	구릉(39-40m)	11	지2, 석관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2	광주 장덕동 장자	구릉(31-41m)	7	수혈4, 용3, 구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3	광주 신완	구릉(37m)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4	광주 수문	구릉(35-38m)	36	수혈45, 토2, 구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5	광주 하남동Ⅲ	구릉(41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6	광주 산정동	구릉(33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37	광주 금곡A	구릉(32-38m)	7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38	광주 금곡B	구릉(38m)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39	광주 관동	구릉(57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유역	연번	유적명	입지(해발)	총 기수	공반유구	참고문헌	
	40	광주 평동(A·B)	평지(13-14m)	43	수혈	호남문화재연구원, 2012	
	41	광주 산정 A	구릉(40-45m)	2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42	광주 연산동 산정	구릉(36-37m)	2		영해문화재연구원, 2020	
	43	광주 연산동 산정-3구역-	구릉(30m)	1		전남문화재연구원, 2020	
	44	광주 기용	구릉(37m)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9	
	45	광주 하산	구릉(32-33m)	7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8	
	46	광주 북룡동	평지(11m)	18	수혈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8	
	47	광주 북룡동291-3	평지(11m)	2	수혈18, 구7	호남문화재연구원, 2020	
	48	광주 매월동 동산	구릉(35-37m)	8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49	광주 입암동 입암	평지(47m)	7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50	광주 송암동	구릉(20-30m)	1		전남대학교박물관, 1979	
	51	광주 노대동 구암	구릉(78-79m)	5	지석8, 수혈1, 구3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52	광주 덕남동 덕남	구릉(89-93m)	2	구 2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53	광주 노대동-행암동	구릉(71-75m)	7	수혈1, 구1	전남문화재연구원, 2011	
	54	광주 노대동 신기	구릉(73m)	3		전남문화재연구원, 2008	
	55	광주 노대동 신기Ⅱ	구릉(76m)	1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지석천	56	화순 하삼 51-53	평지(52-53m)	3		고대문화재연구원, 2019
		57	화순 내평리 I	구릉(60-63m)	8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3
		58	화순 삼천리 황새봉	평지(52-53m)	3	수혈2, 석관2	대한문화재연구원, 2020
		59	화순 백암리	구릉(68m)	1	적석목관1	국립중앙박물관, 고고학지14
		60	화순 효산리 모산	평지(44-45m)	1	지석1, 수혈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7
		61	화순 품평리 봉하촌	평지(68-70m)	15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4
	영산강유류	62	화순 복교리	평지(90m)	2		전남대학교박물관, 1990
		63	나주 안산리 영천	구릉(38-39m)	18	석관21, 수혈4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64	나주 장동	구릉(32-40m)	8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65		나주 장동리	구릉(12-20m)	46	토13, 구13, 수혈30	전남문화재연구원, 2013	
66		나주 청동	구릉(19-25m)	3		영해문화재연구원, 2019	
67		나주 신평Ⅱ	구릉(32m)	2		마한문화연구원, 2014	
68		나주 매성리 재성	구릉(29-35m)	3	수혈	동북아지석묘연구소, 2012	
69		나주 신도리 신평 I	구릉(28-36m)	5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70		나주 신도리 도민동 I	구릉(30-38m)	6		마한문화연구원, 2014	
71		나주 도민동Ⅱ	구릉(37-39m)	24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72		나주 송월동	구릉(21-26m)	2	수혈1, 구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73		나주 송월동	구릉(27m)	3	수혈5	전남문화재연구원, 2010	
74		나주 동곡리 횡산	구릉(15-16m)	1		나주문화재연구소, 2009	
75		나주 오량동요지Ⅱ	구릉(16-18m)	3		나주문화재연구소, 2017	
76	나주 운곡동Ⅱ	구릉(14-30m)	57	수혈, 수로	마한문화연구원, 2009		
77	나주 운곡동Ⅳ	구릉(30m)	17	지석5, 수혈	마한문화연구원, 2014		
78	나주 구기촌	구릉(35-39m)	43	수혈	전남문화재연구원, 2016		
79	나주 양산리 양지촌	구릉(31m)	3	구, 지석묘	마한문화연구원, 2015		

유역	연번	유적명	입지(해발)	총 기수	공반유구	참고문헌
	80	나주 장산리	구릉(26-34m)	4	지석1, 구3	마한문화연구원, 2008
	81	나주 장산리 장사	구릉(21-24m)	5	주공군1	마한문화연구원, 2015
	82	나주 대기동 기동	구릉(23-26m)	3		대한문화재연구원, 2011
	83	나주 은사	구릉(44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7
	84	나주 풍산리 은사	구릉(45-46m)	4	수혈1, 토1, 주공군	대한문화재연구원, 2015
	85	나주 덕산리 동산촌	구릉(32-33m)	1	수혈7	호남문화재연구원, 2021
	86	나주 월양리	구릉(13-22m)	6		마한문화연구원, 2014
	87	나주 이암	구릉(24-26m)	3		호남문화재연구원, 2008
	88	나주 신촌리	구릉(30-32m)	4		국립문화재연구소, 2001
	89	나주 만봉리	구릉	1		해동문화재연구원, 2014
고막원천	90	함평 대성	구릉(38-39m)	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3
	91	함평 용산리	구릉(45m)	2		영해문화재연구원, 2015
	92	함평 외치리 백야	구릉(52-54m)	1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93	함평 외치리 분산	구릉(50-52m)	16	수혈1	호남문화재연구원, 2018
함평천	94	함평 소명	구릉(28-35m)	7		전남대학교박물관, 2003
	95	함평 진양리 중랑	구릉(37-50m)	4		목포대학교박물관, 2003
	96	함평 대덕리 고양촌	구릉(25m)	10	석관21, 수혈87 구 15 등	호남문화재연구원, 2005
	97	함평 향교	구릉(23-29m)	7	수혈5, 구6	대한문화재연구원, 2008
	98	함평 향교 고분	구릉(19m)	1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99	함평 표산리1~3	구릉(34-45m)	24		영해문화재연구원, 2018
	100	함평 신흥동 I	구릉(21-25m)	10	석관10	대한문화재연구원, 2010
	101	함평 신흥동 II	구릉(18-27m)	11		대한문화재연구원, 2013
	102	함평 신흥동 III	구릉(30-33m)	12	석곽2, 수혈1	대한문화재연구원, 2014
	103	함평 월산리 송산	구릉(24-35m)	3	석관1(40m)	호남문화재연구원, 2007
104	함평 성촌리 와촌	구릉(34-39m)	6	석곽2, 토광7	전남대학교박물관, 2007	
105	함평 자풍리	구릉(35-36m)	2	지석2	동서종합문화재연구원, 2016	
무안반도·태봉천	106	무안 용정리신촌 I·II	구릉(27-34m)	8	수혈2, 소성1, 지상1, 구 등	대한문화재연구원, 2016
	107	무안 통정	구릉(23-24m)	5	수혈2	호남문화재연구원, 2006
	108	무안 평산리 평립	구릉(28-30m)	4	지석6, 토2	전남대학교박물관, 2007
	109	무안 하묘리 두곡	구릉(20m)	1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110	무안 하묘리 두곡	구릉(17-19m)	6		대한문화재연구원, 2011
	111	무안 하묘리 둔전 II	구릉(16m)	5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112	무안 연리	구릉(17-21m)	7		전남문화재연구원, 2012
	113	무안 다산리 인평	구릉(23m)	1	주공열10여기, 소성1	목포대학교박물관, 1999
영암천	114	영암 장천리 I·II	구릉	12	고상가옥, 지석묘3	목포대학교박물관, 1986
	115	영암 금계리	구릉(15~18m)	12		목포대학교박물관, 2004

※ 목록은 보고서를 기준으로 작성하였고, 파란색 표시는 전기주거지가 확인된 유적이다.

Ⅲ. 주거유적의 시기별 양상

1. 조·전기 주거의 양상

청동기시대 조·전기 주거지는 평면형태 방형·장방형으로, 석상위석식노지+돌대문토기의 미사리유형, 위석식노지+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가락동유형, 무시설식노지+공열문토기의 역삼동유형, 무시설식노지와 공열문+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의 혼암리유형으로 구분하며, 석기는 이단병식 석검, 삼각만입촉, 이단경촉, 반월형석도 등을 표지로 한다.

조·전기유적은 19개소 50기로 담양·광주·나주에서 12개소, 주변지류인 황룡강·고막원천에서 7개소가 확인된다. 주거입지는 주변보다 높은 미고지 또는 구릉 정상이나 능선을 따라 1~3기로 구성된 다. 나주 동곡리 횡산, 덕산리 동산촌 유적을 제외하고, 인근지역이나 동일한 유적에서 중기주거지가 확인된다. 유적의 전·중기 주거지는 해발 12~56m 범위의 차이가 확인되지만, 전기 주거지만은 해발 30m 내외의 범위에서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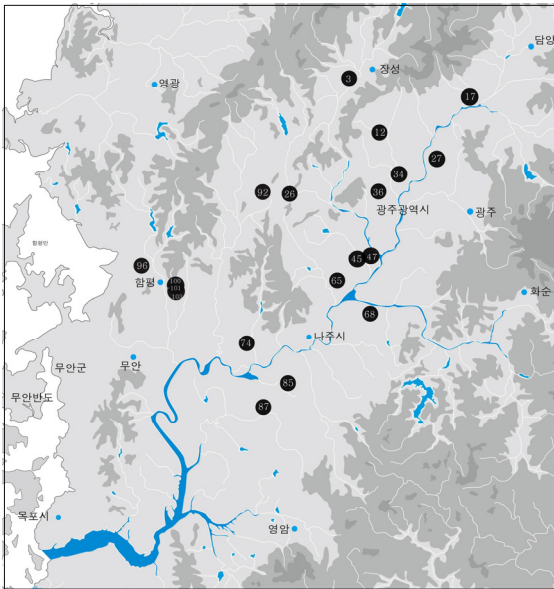


圖 3. 영산강유역 전기 주거지 분포

으로 보아 전기말~중기초의 시기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주거 내부에 저장공이 확인되는 경우 주변에 수혈유구가 없거나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된다.

영산강유역에서 이른 시기로 볼 수 있는 유적은 돌대문토기가 확인된 유적은 담양 태목리와 장성 장산리유적이다. 담양 태목리유적은 영산강상류의 충적대지, 장성 장산리유적은 평지성 구릉에 입지한다. 두 유적 모두 평면형태는 장방형으로 태목리가 좀 더 세장한 형태이다. 내부시설로 보면 태목리는 석상위석식노지, 장성 장산리에서는 위석식노지로 차이가 있으나, 2열의 정연한 주공열은 동일

전기주거지는 토기의 문양을 중심으로 주거지의 평면형태, 노지 등의 구성요소를 통해 구분한다. 영산강유역 전기주거지의 경우 1차적으로 토기문양을 기준으로 삼고 평면형태, 노지 등을 파악하여 전기주거지로 판단하였다(표 5).

전기 취락은 선상·면상취락으로 발전하는 것으로 판단한다(이형원 2009). 주변범위까지 조사가 이루어진 유적을 대상으로 보면, 영산강유역에서 단독으로 입지하는 나주 덕산리와 함평 신흥동유적을 제외하고는 2~3기가 열상 혹은 군을 이루며 확인된다.

유적의 구성에 있어서도 수혈, 매장유구 등이 함께 확인되지만, 전~중기에 걸친 유적이 대부분으로 동시기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나주 장동리유적 토광묘에서 삼각만입촉이 확인되어 전기에 무덤이 축조될 가능성은 있지만 나주 횡산유적처럼 삼각만입촉과 일단경촉이 공반되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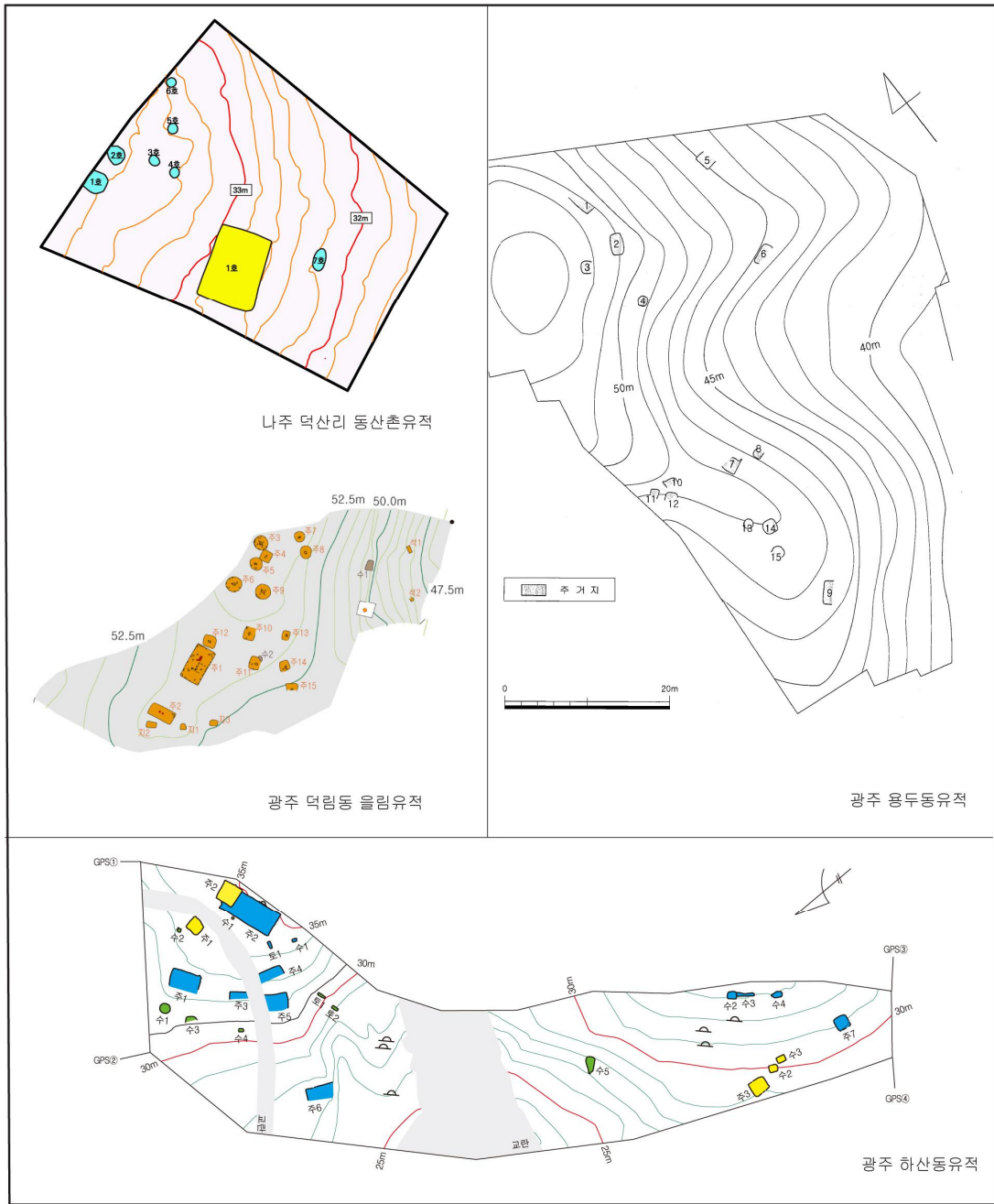


圖 4. 전기주거지 배치유형

하다. 출토유물은 장산리에서 석검편, 이중구연단사신문, 구순각목문이 중심으로 확인된다. 호남지역에서 돌대문토기가 확인되는 유적은 섬진강유역의 순창 원촌, 만경강유역의 전주 동산동, 익산 섬다리, 영등동 유적뿐이다.

청동기시대 주거지는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한다⁴⁾.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기주거의 평면형태는 주로 장방형이다. 내부시설로는 노지, 주공, 벽구, 저장공이 확인된다. 노지는 (석상) 위석식, 무시설식, 토광식 3가지 구조이며, 평면 원형 또는 방형으로 주거지 중앙의 한쪽 면에 치우쳐 확인된다. 노지의 수는 1~3개가 중심이지만 최대 6개까지 확인되며, 일반적으로 동일한 형태가 사용되지만 광주 수문 1호에서 무시설식과 토광식, 광주 덕림동 A-1호·함평 신흥동 I 5호에서는 위석식과 무시설식이 함께 확인된다. 이러한 차이는 나주 매성리 재성유적(482.9㎡), 나주 동산촌(33.6㎡)의 예로 보아 주거지의 증축이나 대형화로 인해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된다. 또한 위석식노지는 함평 신흥동, 을림, 백야, 장성 장산리유적이 위치하는 영산강 서쪽지역에서 확인되는 반면, 무시설식·토광형노지는 광주 용두동, 하산동, 나주 덕산리 동산촌유적 등으로 영산강 분류를 중심으로 확인된다.

주공열은 담양 태목리, 함평 을림, 백야, 광주 수문, 하산동 등에서 2열로 확인된다. 특히 태목리에서는 주공과 함께 초석, 장성 장산리 2호주거지에서는 초석시설만 확인되었다. 나주지역의 경우 소주공만 확인되며, 주공간의 정연성은 보이지 않는다. 호남지역에서 주공이 정연하게 시설된 예는 익산 영등동 2-7호에서 확인된다⁵⁾.

벽구의 형태는 네 벽 모두 설치된 형태, 세 벽, 한쪽 벽을 중심으로 설치된 것으로 구분된다. 벽구의 기능은 배수 또는 벽체 시설을 세우기 위한 것으로 이해하는데, 함평 백야A-1호와 나주 동곡리 횡산 1호 주거지에서는 벽구를 따라 외부의 배수구로 이어지는 소위‘울산식 주거지’의 형태가 확인된다. 담양 태목리와 광주 수문유적에서는 벽구 내에 주공이 배치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벽체를 세우기 위한 시설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전기 주거지에서 저장은 내부의 수혈에서 토기 등을 근거로 저장공으로 활용한 것으로 이해한다. 저장공으로 보고된 예를 제외하고 영산강유역 전기주거지에서 파악된 수혈은 1~3개가 중심을 이루며 평면형태 원형·방형·부정형으로 정연성은 확인되지 않는다. 수혈의 깊이는 8~25cm 내외로 시각에 따라 저장공간으로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낮다고 보기도 하지만, 우정연(2014)의 연구성과를 참고하자면 단기저장시설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외부의 저장시설은 주거지 주변이나 주거지들 사이에 분포하는 양상이다.

4) 주거지의 장단비에 따라 평면형태를 방형, 장방형, 세장방형으로 구분하며, 규모를 통해 소·중·대형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연구자에 따라 면적과 규모에 있어 기준이 상이하며, 잔존상태로 보아 정확한 양상을 파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여기에서는 다루지 않았다.

5) 주거의 주공열 배치나 초석의 사용은 미사리, 가락동, 역삼동유형과의 차이로 추측한다. 돌대문토기와 위석식노지가 확인되는 담양 태목리유적의 주공열은 정연하며 초석이 확인된다. 장성 장산리유적 또한 비슷한 양상으로 이외 지역의 전기주거지의 주공열에는 확연한 정연성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주공의 정연함이 시기성을 내포한다면, 태목리와 장산리 주거지를 조금 이르게 편년 가능할 것이며, 유형간의 차이도 구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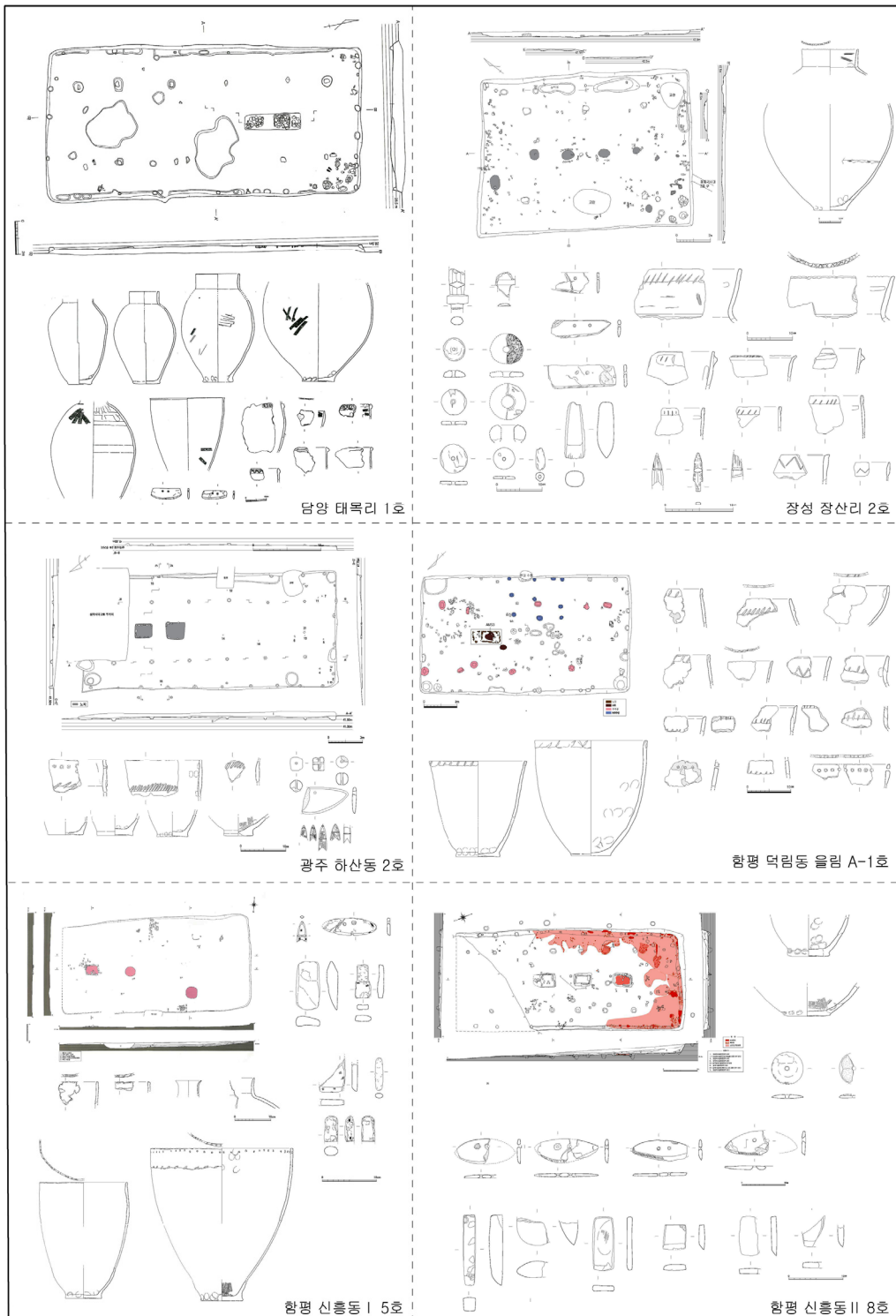


圖 5. 영산강유역 전기 주거지(주거 1/80, 유물 축척부등)

전기 주거지에서 출토되는 주요 유물은 돌대문, 거치문, 이중구연단사선문, 공열문, 구순각목문 단독문과 복합문토기를 비롯한 이단병식석검, 삼각만입촉, 석도, 석부, 방추차가 중심을 이룬다. 돌대문토기는 절상돌대문으로 담양 태목리, 장성 장산리에서 확인되며, 광주 용두동, 산정동, 수문, 함평 고양촌 등에서는 이중구연단사선문을 표지로 하는 가락동식토기가 주를 이룬다. 석기는 이단병식석검 병부편, 삼각만입촉과 일단경촉이 확인되며, 고막원천·함평천지역의 신흥동, 백야유적에서 합인·편인·환상석부와 함평 올림 A-1호에서 천하석제의 곡옥이 1점 주목된다.

호남지역에서 전기유적의 출현은 만경강유역과 섬진강유역권에서 가장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파악한다(천선행 2016:17), 영산강유역의 전기유적은 가락동유형과의 관련성이 높으며 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홍밤음 2012; 천선행 2019). 또한 일상에서 사용하는 토기는 생계방식의 변화나 주민의 교체가 일어나지 않는 한 전통적인 토기가 그대로 제작·사용되는 점으로 미루어, 가락동 유형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만경강 일대에서 역삼동유형의 복합문양이 시문된 토기가 출토된 점은 가락동유형 집단에 의해 역삼동유형의 일부 요소가 수용된 것으로 보고 있다(김규정 2013:87).

평면형태를 제외하고 주거내부에서 확인되는 주공, 노지, 벽구시설들은 시기적인 변화관계가 뚜렷하지 않지만(홍밤음 2012), 나주 황산유적, 함평 올림유적에서 공열+구순각목이 시문된 역삼동유형이 확인되는 점 등으로 보아 비슷한 시기에 지역별로 점유된 상태로 추정되며, 수계에 따라 주거구조 입지나 지역별 전개과정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된다⁶⁾.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전기유적의 연대추정치는 B.P.3310~2670 범위로 절대연대를 통한 전기 주거지의 연대는 기원전 13세기 전후에 광주 하산동 2호, 광주 덕림동 A-1호이다. 기원전 12~11세기는 담양 태목리 1호, 광주 용두동 1호, 수문 1호, 하산동 1·5호, 나주 이암 1호, 황산 1호, 함평 백야 A-2호이다. 기원전 10~9세기는 광주 수문 2호, 나주 매성리 재성 1호, 덕산리 동산촌, 함평 고양촌 2호, 백야 A-4·10호이다.

연대추정치를 근거로 청동기시대 전기는 분포상에서 지역 간 증감의 상관관계나 특정 지역으로부터의 인구 유출 및 점진적 확산의 근거가 될 수 있는 변동 양상이 관찰되지 않아, 남한 전역은 3200~3100B.P. 이래 동시다발적인 점유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다(황재훈 2015). 영산강유역에서도 광주 하산동, 덕림동 유적을 예로 보아 기원전 13세기 전후한 시기에 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6) 영산강유역에서 가락동유형이 중심을 이루었다면, 함평, 나주일대에서 보이는 역삼동유형의 구성요소는 서해안의 고창, 남해안의 순천, 여수지역까지 넓은 범위에서 확인된다. 이는 기존의 문화요소에 새로운 문화가 유입·접촉된 것으로 이해되는데 앞으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表 4. 영산강유역 주요 전기주거지

유적명	유구	규모			내부시설				주요 유물	연대 측정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노지	주혈	벽구	수혈			
장성 장산리2	2	1250	950	20~25	위석			3~5	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선, 방추차, 석검, 석도, 석촉 등		
	3	510	460	12	위석1	○			구순각목, 석도, 석촉 등		
장성 월정리II	1	1556	188	15	소토2		○	1	방추차, 저부편		
담양 태복리II	1	1802	836	64	1	○	○		돌대문, 직구용, 석도	2980±50	
	2	620	436	34	1	○					
광주 용두동	1	740	320	30	2	○			단사선, 삼각만입촉	2980±50	
	2	620	380	45	무시설1		○		이중구연단사선, 석도, 삼각만입촉		
	5	505	365	30	○				이중구연단사선, 토제구슬		
	6	620	220	20	무시설		○	2	이중구연단사선구순각목	1710±50	
광주 수문	1	1500	245	10	무시설3 토광2	○		○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문, 삼각만입촉	2920±60	
	2	1860	360	30	5	○	○	○	공렬, 어망추, 삼각만입촉, 석검, 석도	2690±60	
	2-1	1060	140	30	·	○	○		구순각목문, 유경석석촉		
	29	380	100	15	·		○		구순각목문, 석도		
광주 산정동	1	846	340	26	무시설2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		
광주 북룡동291-3	1	640	550	25	1				구순각목		
광주 하산동	1	810	514	20	무시설2	○	○	3	삼각만입, 구순각목	2994±28	
	2	1500	706	60	위석식2	○	○	2	삼각만입, 석도, 어망추	3057±56 3140±29	
	3	418	220	10	무시설3		○	1			
	4	624	248	16	무시설2	○	○	1	삼각만입		
	5	588	440	37	3	○	○	1	삼각만입, 방추차, 어망추, 석도	2995±32	
	6	774	288	21	무시설4	○	○			2715±31	
광주 덕림동 을립	A-1	1230	690	30	위석식2 무시설1	○			구순각목공렬, 이중구연단사선문, 편인석부, 곡옥	2670±30 3310±50 2820±30	
	A-2	920	410	15	무시설				이중구연, 이중구연단사선공렬		
나주 이암	1	692	520	23	3	○			단사선문	2960±50 3010±50 3070±50	

유적명	유구	규모			내부시설				주요 유물	연대 측정	비고
		길이	너비	깊이	노지	주혈	벽구	수혈			
나주 장동리	26	1100	510	25	무시설1 토광1		○	1	구순각목, 어망추, 석촉		
나주 동곡리 횡산	1	874	572	50	3	○	○	4	구순각목, 공렬, 석촉, 석부, 어망추 등	3060±60 2860±50 2930±50 2880±50	
나주 매성리 재성	1	1230	430	12	무시설6	○	○	2	이중구연단사선문, 구순각목, 어망추, 삼각만입촉	2750±50 2920±50 2540±50	
나주 덕산리 동산촌	1	668	504	23	무시설1	○	○	4	구순각목, 단사선, 석착	2880±30 2970±30	
함평 대덕리 고양촌	2	558	406	10	무시설1	○	○		이중구연단사선, 적색마연토기편	2700±40 2790±60	
함평 신흥동 I	5	1106	546	12	무시설2 위석식1				이중구연단사선, 구순각목공렬,		
	6	284	208	6	토광1				구순각목		
	7	658	276	10	무시설2	○		5	저부편		
	8	300	286	20	무시설1				구순각목단사선문		
	9	556	324	19	무시설2	○		1	석부편		
	10	276	204	2	무시설1				지석		
함평 신흥동 II	5	526	360	18	무시설2				이중구연단사선문, 석도, 편인석부		
함평 신흥동 II	8	1328	568	52	위석식3	○	○		석도, 방추차, 편인석부		
함평 외치리 백야	A-1	482	428	8			○		구순각목공렬		동일주거 가능성
	A-2	370	426	10	위석식1	○	○	1	무문토기편	2930±30	
	A-3	328	384	16	1	○		1	구순각목, 석도		
	A-4	1196	470	60	무시설4	○	○		구순각목, 구순각목단사선, 환상석부, 석도	2850±40 2810±40	
	A-5	428	334	32	무시설1				이중구연단사선, 미완성석기		
	A-6	928	640	37	무시설1		○		구순각목		
	A-7	660	345	26	무시설1		○		구순각목		
	A-8	428	404	42	토광1	○	○	1	구순각목, 석부편, 석촉		
	A-10	338	380	20		○			구순각목, 이중구연단사선	2880±30	탄화극물 (들깨)

※ 주거형태 및 구조를 중심으로 일부 요소만 확인되는 유구는 제외하였으며, 제원은 보고서에 보고된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

2. 중·후기주거의 양상

청동기시대 중·후기는 생업경제상의 변화에 따라 농경 중심의 생계변화가 정착되는 시기로 이전 시기와는 평면형태, 구조상에서 차이를 보인다. 타원형구덩이와 중심기둥의 조합상이 특징적인 소위 ‘송국리형 주거지’로, 평면형태, 타원형구덩이, 중심주공 및 4주의 배치로 구분한다. 이러한 분류는 지역적 양상이 확인되며 휴암리형, 송국리형, 효자동형, 오곡리형, 검단리형 등 세부유형으로 설정한다(김규정 2013:88).

영산강유역 중·후기 취락은 88개소 679기가 확인된다. 이전 시기에 비해 4.5배정도 증가한 수치이다. 특히 광주·나주지역에서의 증가가 뚜렷하게 확인되며, 30기 이상의 군집된 주거군이 확인된다.

유적이 입지는 산지성 구릉을 제외하고 해발 30~40m의 범위에 중심적으로 분포하며⁷⁾, 입지하는 광주 평동, 북룡동유적의 경우 10~15m에서 확인된다. 농경사회로의 진입은 농경지로서의 접근성이 중요해지며 구릉의 사면을 선호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김승옥 2006:30), 해발 60m 이상의 산지성 주거를 제외하고 분포의 높이에 있어 일정범위 내 위치와 구릉 주변으로 총적지가 확인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농경이 생계의 일정부분을 차지한 것으로 생각된다.

먼저 주거규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주거규모에 대한 기준은 지역 및 연구자마다 상이하⁸⁾, 영산강유역의 양상을 바탕으로 1~5기 소형, 5~10기 중형, 11~15기 대형, 16기 이상을 초대형으로 설정하였다.

5~10기 내외의 소·중형 주거군은 영산강유역 전 지역에서 고르게 분포하며, 5기 미만이 중심을 이루며 일정 범위 내 분포하는 양상을 보여준다. 다만 영산강하류에 해당하는 영암천에서는 주거군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게 확인된다⁹⁾.

11기 이상의 대형 주거군은 영산강 본류의 광주, 나주지역과 함평에 분포한다. 인근지역에 입지하는 일부 유적(광주 용두동, 노대동, 연산동, 북룡동 등)을 묶어본다면 20기 이상이 군집된 취락으로도 볼 수 있어, 영산강 본류에서의 집중되는 양상이 뚜렷해진다. 이중 전기에서 중기까지 시간폭을 가지는 유적은 담양 태목리(20기), 광주 용두동(23기), 수문(36기), 덕림동 을림(28기), 나주 장동리(46기), 함평 신흥동(33기)이다.

청동기시대 소·중형 주거군이 공간적으로 군집하는 경우 혈연적으로 가까운 하나의 출계집단 주거로 판단한다(김승옥 2006). 영산강유역의 주거군은 혈연을 기반으로 한 집단이 중심을 이루며, 점차 대형 취락으로 발전해가는 양상으로 파악할 수 있다.

주거군의 분포배치에 있어서는 1기만 확인되는 단독 배치뿐만 아니라 열상, 부정형 등의 다양한 배치형태가 확인된다. 이는 주거군 구성에서 저장시설로 판단하는 수혈과 주공군(고상건물지)의 수가 적다는 점과 연관시켜 볼 수 있다.

중기 주거지의 저장시설은 특정지점에 군집하거나 주거군별로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이다. 전면적

7) 지석천유역인 화순군의 경우 해발고도 50m이상에서 유적이 분포하지만, 지형적인 측면인 것으로 평지와의 상대고도를 통해 본다면 타 지역과 동일한 입지조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된다.

8) 일반적으로 10동, 20동 30동 이상을 소형, 중형, 대형으로 구분하며, 지역별 주거수량의 편차에 따라 기준이 되는 주거수의 설정값은 다르다. 본고에서도 소규모 주거가 중심으로 확인되는 양상으로 이에 맞추어 설정하고자 한다.

9) 담진강유역 등 주변지역의 청동기시대 이후 취락의 양상으로 본다면 조수와 같은 자연환경으로 인해 입지가 제한적이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인 발굴조사가 아닌 이상 확인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존재하지만, 외부 수혈은 수도작이 확산된 중기에 다수 확인되며(손준호 2004), 전기의 늦은 단계부터 일정한 주거지군에 배치되며 잉여생산물의 관리가 개별 가구에서 다수의 가구군으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한다(허의행 2013).

수혈유구는 주거군의 규모와 비례하지 않으며 함평 고양촌(87기), 광주 수문(45기), 나주 장동리(30기) 외에는 대부분 10기미만의 수량만 확인된다. 비슷한 입지를 갖춘 대다수의 주거군을 비롯하여 해발고도 60m이상의 산지성 구릉에 입지한 광주 노대동, 노대동 신기, 노대동 덕남 유적과 차이가 크지 않다. 상기 유적은 인접한 구릉으로 1개 단위로 묶을 수도 있지만, 동일 집단으로 묶더라도 배치양상에 있어 수혈 2기와 무덤만이 확인된다¹⁰⁾.

다음으로 주거지의 구조와 관련하여 핵심적인 요소는 원형, 타원형, 팔각방형, 방형의 평면형태와 타원형 구덩이의 내주공, 외주공, 무주공 등이다. 평면형태는 주거지의 시기 및 지역성을 파악하는데 주요하게 작용한다.

영산강유역 중·후기 주거의 평면형태는 방형과 원형이 모두 확인되며, 비율은 1.4:1로 원형과 방형에 있어 차이를 파악하였으나(이종철 2015:78-79), 조사사례가 많아지면서 1.19:1의 비율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 호서·호남지역 중기 휴암리유형 검토를 통해 영산강유역의 경우 동일한 권역에서도 상류지역은 송국리형, 이외의 나주, 영광, 장성지역에서는 휴암리형이 높게 확인되는 등 지역별로 상이한 차이를 파악했다(노양지 2021). 또한 영산강유역 중·후기 주거에서는 송국리형 주거의 특징적인 타원형구덩이와 주공이 나타나지 않는 방형주거지가 확인된다.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타원형구덩이와 중심주공의 형태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다. 타원형 내부에 주공이 위치하는 내주공 형식이 83%로 중심을 이루며, 외주공(7%)>무주공(4.25%)=4주식(4.25%)>중간식(1.5%)순으로 확인된다. 영산강 본류에서 멀어지면서 특정 형식, 늦은 시기의 경우 중심 기둥의 간격, 배치 등의 정연했던 형태가 흐트러지는 양상이 파악된다.

表 5. 호서·호남지역 중기주거지 평면형태(노양지 2021 인용 정리)

지역		유적(기수)	비율	비고(특징)
호서	서해안	42(466)	휴암 > 송국	
	아산만	33(248)	휴암 < 송국	기타 주거지 비중이 높음
	금강상류	52(495)	휴암 < 송국	
	금강 중·하류	46(338)	휴암 < 송국	
호남	만경강	73(561)	휴암 < 송국	
	영산강	81(711)	휴암 = 송국	나주, 영광, 장성 : 휴암리 / 광주, 담양 : 송국리
	남해안	28(285)	휴암 > 송국	광양, 순천지역
	섬진강	13(118)	휴암 > 송국	임실 : 송국리 / 곡성, 구례 휴암리 3배

10) 비교 대상에 있어 산지성 구릉에 입지하는 주거의 경우 원형점토대토기문화의 접촉으로 인해 구분되는 것으로 파악하기도 하나, 여기에서는 유적의 입지에 따라 저장시설이 확인되지 않는 점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이외의 내부시설은 중기주거지에서 일반적으로 확인되지 않지만, 벽구가 주거지 일부 또는 전체적으로 시설되며 타원형 구덩이로 연결되는 형태도 확인된다. 또한 수혈을 비롯한 방형의 주거에서 노, 점토다짐의 사례가 확인된다. 이에 대해서는 주거의 배수시설, 내부 공간분할 등 그 기능과 관련하여 다양한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출토유물은 심발, 호, 외반구연의 토기류와 함인석부, 유구석부, 삼각형석도, 석검 등의 석기류, 방추차·어망추 등이 다양하게 출토된다.

영산강유역의 중·후기 주거지의 주요 연대측정치의 범위는 B.P.2970 ~ 2300이다. 보정곡선의 평탄화에 따라 신뢰성 문제가 있으나, 대략적인 경향성 파악은 가능하다. 측정된 절대연대치에서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는 시료를 제외하면 B.P. 2,700을 상회하는 자료가 확인된다. 해당유적은 화순 북교리를 제외하고 전기 주거지가 확인되어 전~중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거의 평면형태 및 내부구조에 있어 변화가 파악되었는데, 연대측정치로 본다면 B.P. 2620에 해당한다. B.C 7~6세기경 무안지역까지 주거범위가 확장되는데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간성을 가지고 전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외의 지역에서는 전기부터 지속적으로 유적이 점유되는 양상으로 파악된다.

하한과 관련하여 청동기시대 후기에 해당하는 수석리, 교성리 등 점토대토기집단의 주거유적은 고지에 위치하며 점차 재지집단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접촉한 것으로 이해한다. 영산강유역에서는 고지성 취락에 해당하는 유적은 장성, 광주에서 확인되며, 산지성 구릉에 입지하는 광주 노대동유적의 절대연대는 B.P 2620~2520의 범위에 해당하며 이른 시기부터 입지차이가 주목된다. 또한 전기부터 유적이 확인되는 함평 고양촌, 광주 수문과 충적대지에 입지하는 평동유적을 비롯한 화순 황새봉유적 등에서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경질무문토기의 양상이 확인됨으로 영산강유역의 송국리형 주거의 시간 폭을 넓게 이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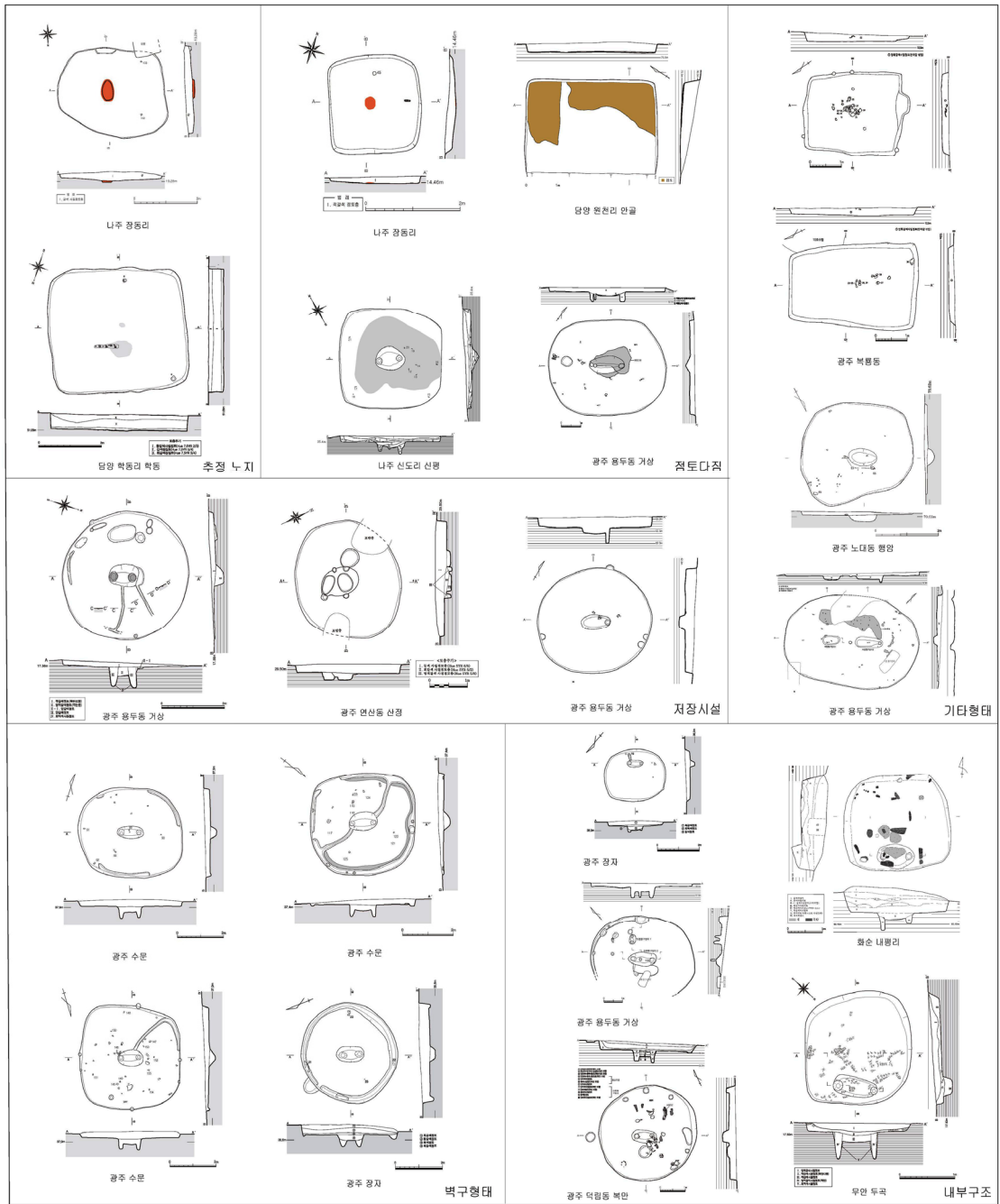


圖 6. 중·후기 주거지 특이구조

表 6. 영산강유역 주거지 절대연대 측정치(전기주거지 외)

유적명	호수	탄소연대	유적명	호수	탄소연대
나주 운곡동유적Ⅳ	16호-1	4200±60	함평 와촌	5호-2	2530±50
영암 장천리		4140±120	함평 외치리 백야	B-4호-1	2530±40
영암 장천리		3930±12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19	2520±60
광주 용두동	4호-2	2970±60	함평 고양촌	HP-1	2520±40
광주 용두동	7호-1	2960±60	함평 외치리 분산	4호-1	2510±40
화순 복교리	c-1	2950±120	광주 덕림동 을림	A-12호	2510±30
광주 용두동	4호-1	2940±60	광주 성덕유적(장자)	7호	2500±60
광주 노대동	6호-2	2930±60	광주 덕림동 복만	1호-2	2500±40
광주 복룡동	I-10	2898±30	함평 외치리 분산	4호-2	2500±40
광주 용두동	13호-1	2890±60	함평 외치리 분산	4호-3	2500±40
담양 성산리유적	2호	2890±60	함평 외치리 백야	B-4호-1	2500±40
광주 용두동	4호-2	2880±50	무안 평림	4	2490±50
광주 용두동	13호-2	2830±60	광주 덕림동 복만	1호-1	2480±30
나주 복룡동	Ⅱ-2	2817±31	광주 노대동 신기	3호-3	2470±60
광주 용두동	7호-2	2790±60	광주 산정	18호	2470±60
함평 고양촌	HP-3	2790±60	나주 운곡동Ⅱ	31호	2470±50
광주 용두동	15호	2780±120	광주 수문유적	13호	2460±60
광주 노대동	6호-1	2770±60	장성 환교유적1	2호	2460±60
나주 복룡동	Ⅱ-1	2738±29	무안 평림	3	2460±50
나주 복룡동	I-5	2729±24	나주 운곡동Ⅱ	2호	2450±60
함평 고양촌	HP-2	2700±40	나주 영천유적	6호	2450±50
광주 노대동 신기	3호-5	2620±60	광주 덕림동 을림	B-1호	2450±30
무안 평림	2	2620±50	광주 노대동 신기	2호-1	2440±60
광주 노대동	1호	2610±50	광주 덕림동 을림	A-5호	2440±30
광주 수문유적	5호	2610±50	광주 신완	1호	2430±80
광주 노대동 신기	2호-4	2590±50	나주 도민동	28호	2420±50
함평 와촌	5호-3	2590±50	나주 운곡동Ⅱ	6호	2420±40
나주 운곡동Ⅱ	18호	2580±50	나주 운곡동Ⅱ	2호-2	2410±4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4	2570±50	함평 고양촌	HP-10	2400±60
나주 운곡동Ⅱ	33호	2560±50	광주 산정	23호	2400±50
함평 와촌	5호-1	2560±50	함평 고양촌	HP-6	2390±40
나주 운곡동Ⅱ	33호	2560±50	나주 운곡동Ⅱ	4호	2380±60
함평 고양촌	HP-4	2560±40	광주 노대동	3호	2370±50
나주 운곡동Ⅱ	5호	2550±60	광주 수문유적	8호	2310±6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1	2550±50	나주 운곡동유적Ⅳ	11호	2300±60
나주 운곡동Ⅱ	41호	2550±50	함평 고양촌	HP-7	2200±60
광주 용두동	14호	2540±80	함평 고양촌	HP-9	2140±60
광주 노대동 신기	1호-12	2540±60	나주 운곡동유적Ⅳ	18호	2130±60
장성 환교유적1	4호	2540±60	함평 고양촌	HP-5	2110±40
무안 통정유적	1호	2530±50	함평 고양촌	HP-8	2050±50
광주 산정	20호	2530±50	나주 운곡동유적Ⅳ	8호	1900±60
장성 환교유적1	1호	2530±50	나주 운곡동유적Ⅳ	16호-2	1540±50

IV. 주거의 편년과 특징

고고학 연구에 있어 편년과 생계는 무게감이 있는 분야이다. 이는 시간축 설정을 통해 변화상을 파악하고 당시 사회문화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영산강유역 청동기시대 재조명이 라는 주제에 맞추어 영산강유역 주거의 편년과 생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1. 편년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편년은 호남지역의 토기의 변화상 및 절대연대를 참고하여, 상한은 기원전 1300년, 하한은 점토대토기문화와 관련하여 기원전 5~4세기로 편년하고 있다(김규정 2013; 양영주 2013; 홍밝음 2013; 이영문 2013, 2014). 먼저 전기의 편년은 연구자마다 차이는 있으나 절대연대를 기반으로 유물상을 통해 3기로 구분한다. 절대연대는 B.P. 3,000~2,700범위이며, 평면형태 방향에서 장방형, 복수의 노지, 주공열의 변화, 단사선문+구순각목, 공열+이중구연의 복합문 요소 등을 주요 요소로 파악한다.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전기로 편년되는 주거지들이 점차 확인되는 추세로, 연대측정치는 B.P.3310~2670 범위이다. 담양 태목리와 장성 장산리에서는 절상돌대문이 출토되어 영산강유역에서 이른 시기로 편년 가능하다¹¹⁾. 절대연대측정치의 중심 분포범위는 기원전 12~11세기에 해당하지만 광주 하산동 2호, 광주 덕림동 A-1호는 기원전 13세기 전후까지 올려볼 수 있다. 따라서 기원전 13세기 전후한 시기에 전기주거지가 조성되기 시작하며, 분묘 측정치 또한 B.P. 2610~3080에 해당하는 지식묘(나주 랑동), 토광묘(나주 장동리) 자료로 보아 전기의 양상이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중·후기는 전기에 비해 주거지와 유물의 변화상이 뚜렷하지 않으나, 호남지역의 경우 상한 기원전 9세기, 하한 3세기로 보고 있다(김규정 2013:92). 중·후기유적의 절대연대측정치는 상대적인 연대폭을 통해 경향성 파악은 가능하다 생각된다. 영산강유역에서 측정된 절대연대는 B.P. 2,700 ~2,400에 주로 분포한다. 연대측정치를 보면 광주·나주·함평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점유되며 평면형태에서도 방형과 원형의 주거지가 공존하는 양상을 보여준다(표 7). 평면형태에 따라 집단의 성격이 다르다면 영산강유역에서는 집단이 통합되는 양상으로, 지역마다 문화양상의 차이가 존재하며 다양성을 띄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지속적으로 송국리형 주거지나 유물의 변화양상이 뚜렷하지 않고 광주 하남동 1호 출토 두형토기, 광주 수문 5호 점토대토기를 비롯한 영암 엄길리 유적 4호 지식묘에서 흑도장경호, 광주 성덕유적 1호 토광묘에서의 삼각형점토대토기가 출토되는 점으로 보아 영산강유역은 전기의 가락동·역삼동유형을 기반으로 송국리문화와 접변하여 늦은 시기까지 지속된 것으로 추정된다.

11) 초기의 설정은 돌대문토기 단독기로 파악하는 시각(고민정 2010; 천선행 2005·2007; 홍밝음 2013)이 중심이나, 광주 덕림동유적(호남문화재연구원 2007)에서 신석기시대 만기의 점열문토기와 구순각목+이중구연단사선문토기 공반 및 목기의 연대측정 보정연대가 기원전 1120~1480년으로 초기의 설정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김규정 2013; 이영문 2014). 영산강유역에서 확인되는 돌대문토기는 절상돌대문으로 세부형식이나 공반유물상을 고려해볼때 초기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금강 중류 가락동유형이 미사리유형 취락에 선행하는 의견(공민규 2011:57)이 제시되어 영산강유역의 전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表 7. 중·후기 취락 규모에 따른 유구 평면형태

전체 유적수 (N=101)	소형(~5기)			중형(~10기)			대형(~15기)			초대형(16기~)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휴암리 단독	송국리 단독	공존
황룡강(10)	4	1	4			1						
영산강 상류(37)	6	9	3	2	4	5			2		1	5
영산강 중·하류(24)	7	5	3			3						6
지석천(6)	1	2	1			1			1			
함평천·고막원천(14)		4	1	1	1	3			2			2
무안반도(8)	1	3	1			3						
영암천(2)					1	1						
계	19	24	13	3	6	17	0	0	5	0	1	13

2. 특징

1) 영산강유역 주거의 지역성

송국리문화는 호서지역을 중심으로 경기남부, 영남, 호남지역까지 확인되며, 한반도 청동기시대 구분의 획기로 중요하고 특징적이다. 특히 송국리형 주거의 방형과 원형의 구분과 변화는 선후관계와 지역성, 주거군의 밀집분포는 청동기시대 사회 전개에 있어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동기시대 주거의 평면형태의 경우 장방형→방형·말각방형→원형·타원형으로 변화상이 중복관계나 공반유물을 통해 시간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영산강유역에서는 원형과 방형계의 비율이 비슷하며 원형→방형으로의 선후관계가 광주 수문유적 등에서 확인되며, 주변 지역인 영광 마진, 장흥 신평유적에서도 방형이 후행하는 중복양상이 파악된다.

선행연구에서도 원형과 방형주거가 공존하였으나 원형계가 줄어들고 방형계가 증가하거나(유항미 2006), 원형계에서 방형계로 변화한다는 의견(김규정 2006) 등 점차 방형계의 비중이 커지면서 장방형주거지로 변화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점으로 보아 영산강유역에서는 방형의 주거지가 특징적인 양상이라 생각된다.

방형의 휴암리 물질문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송국리문화와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성과(명승렬 2014)를 참고하면, 선후관계는 금강 중·하류지역에서는 확인되지만 시기차이는 크지 않으며, 중심지역 외의 지역에서는 유적에 따라 방형과 원형의 선후관계가 다르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휴암리유형의 연대측정치가 호남지역에서는 영산강-남해안/만경강-섬진강순으로 이른 연대치가 확인되는 점은(노양지 2021:66) 중·후기문화의 집적을 비롯한 주거의 범위가 주변지역으로 확장되는 양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당시 사회는 인구가 증가·집중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가 시작되는 시기로, 경기남부 반송리식, 영남지역 동천동형, 하촌리형 주거형태가 설정되고 자체적인 발생으로 파악하기도 한다(박성희 2015; 이수홍 2014). 호남지역의 양상은 다양한 지역과의 교류를 통해 형성된 결과(김규정 2013; 양영주 2009)와 충청지역의 인구유입으로 이해하기도 한다(황재훈 2009; 노양지 2021)12).

영산강유역의 중·후기의 방형주거에서도 일부 전기요소가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계기적인 변화와 함께, 문화유입에 따라 공백지역을 점유하면서 발전해가는 가능성 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전제를 둔다면 전기의 문화가 지속적으로 발전함과 동시에 지속적인 문화유입으로 다양한 형태로 접변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차이는 전북 및 호남 동부권의 경우 지형적인 제약으로 인해 한정된 공간에서 발전하는 방향성으로 이해된다면, 영산강유역의 주거군은 대부분 소형에 속하며 주거 배치의 불규칙성, 각 수계별 상위의 중형 및 대형주거군(광주 수문, 평동, 덕림동 을림)의 존재는 경쟁보다는 상대적으로 점유가 가능한 주변 환경을 통해 각 지역별 거점을 중심으로 통합되며 발전하는 것으로 추정된다¹³⁾.

2) 영산강유역의 생업경제

청동기시대 생업경제에 대한 주요한 관점은 화전이나 수전방법 등 농경을 입지, 형태 중심으로 논의되어왔으나(안재호 2000; 이홍종 외 2010; 고일홍 2010), 유구, 유물중심의 토기용량(김범철 외 2007, 2013), 저장공 및 수혈(허의행 2011; 우정연 2014), 석기조성비(손준호 2008, 2019) 등 다양한 시각에서 생업환경을 추론하고 있다. 한편 송국리문화의 생업환경과 관련해서는 수렵·채집에서 수전이 본격화되며, 이로 인한 경제적 변화가 주거, 생계 등 사회 전반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한다(김장석 2008). 다만 자연환경 및 사회조직의 특성이 유사함에도 송국리문화단계의 변화는 단일한 동인과 과정으로 설명하기에는 어렵다고 한다(김범철 2006:90).

영산강유역 주거의 양상을 보면 일부 유적을 제외하고 주거군의 구성요소에서 저장시설, 분묘 등의 부재는 공간분할의 가능성이 가장 높지만, 집단이 분화하거나 일정범위 내 집단의 공동 생산소비, 소규모 집단의 유입·정착 등 다양한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거지간의 동시기성, 분묘와의 연관성 등 넓은 시각에서 검토가 필요하기에 현재까지 조사된 유적의 양상을 석기조성비와 저장공 및 수혈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석기는 실생활에 이용되어 생계 활동의 변화상이나 지역적 특징, 입지에 따른 차이, 유적·유구의 성격 규명 등 생계경제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석기조성비가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손준호 2008, 2019; 박서현 2016).

남한지역 청동기시대 전체 석기 조성비 비교를 보면 입지별 석기조성비에서는 구릉과 충적지의 차이는 크지 않고, 시기별 변화상이나 농경 또한 지역에 관계없이 변화의 방향이 유사함과 지역별 특정 기능의 도구가 뚜렷하게 확인되었다(손준호 2016:332-333). 주목할 만한 사항은 시기별 석기조성비에서 초기~중기의 수확구의 감소양상과 지역별 특정도구가 높은 비율로 확인되는 점이다. 호남지역 또한 수확구의 비율이 가장 낮게 확인되는 점은 동일하게 파악되며, 수확구가 감소하는 현상은 도구의 효율성 증가로 판단한다(손준호 2019:337-338).

12) 한반도 내에서 동일한 유물이나 유구의 공반상이 같다면 그 양자는 동일시기로 뒤야하는 의견을 참고하여 제주도 청동기시대 전기의 전개과정을 검토하면서 중서부지역을 중심으로 확인되는 편구용, 구순각목문토기와 공반하는 주상편인 석부 등을 통해 살펴볼 때 제주도 내의 방형주거지를 전기후반까지 소급하며 인구유입을 추정하기도 한다(오원홍 2018).

13) 영산강유역에서 보여지는 송국리형 주거에서 출토되는 점토대토기, 주거의 입지, 분묘의 분포에서 확인되는 양상으로 보아, 청동기시대 후기뿐만 아니라 기존부터 새로운 문화요소를 받아들이는 유연함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추정하고자 한다.

수렵구, 목재 가공구, 석기 가공구 등 도구의 변화는 생산을 위한 도구체계 및 생산체계의 변화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또한 호남지역에서 특징적인 양상인 수렵구는 농경 이외에 수렵 등의 복합 생계를 반영하는 자료로 이해된다. 영산강유역의 경우 경작유구의 부재라는 불완전성이 있지만 주거군의 입지 및 광주 신창동유적을 감안한다면 청동기시대 중기의 생업은 수전이 중심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생산물의 저장이다. 청동기시대 조·전기에서 저장은 주거지 내부의 저장공, 중·후기에는 주거지 외부의 수혈이나 고상건물(주공군)을 저장시설로 활용한 것으로 추정한다.

영산강유역에서 수혈유구는 전기에 주거지 주변이나 주거지들 사이에 분포하며, 중기 주거지에는 특정지점에 군집하거나 주거군별로 나뉘어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외부 수혈은 채집의 양상을 보여주거나 수도작이 확산된 중기에 다수 확인되며(손준호 2004), 전기의 낮은 단계에 일정한 주거지군에 딸려 배치되는 현상에 주목하여 야외 수혈을 저장시설로 이해하고 잉여생산물의 관리가 개별 가구에서 다수의 가구군으로 이행된 것으로 이해하기도 한다(허의행 2013). 이와 같이 청동기시대 저장은 저장공이나 굴립주 건물로 이해하고 있으나, 영산강유역에 있어 보관을 위한 수혈이나 지상건물지로 추정되는 주공군은 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수혈유구의 주 목적은 저장시설로 활용된 것으로 파악하지만 이외 물품 보관시설, 혼연처리 등 다양한 용도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호서지역 수혈유구의 깊이와 저장기간 사이의 상관관계를 검토한 결과, 주거 내부에서 확인된 수혈은 특수한 대상물을 보관하기 위한 시설로 판단하였다. 기능적으로 유구에서 확인되는 토기, 석기의 출토로 보아 지역 내 큰 차이가 없으며, 명확한 용도구분은 어렵지만 저장시설로 잠정 파악하고 깊이 차이를 통해 단기저장용과 장기저장용으로 구분하였다(우정연 2014:118-121).

영산강유역의 저장공 및 주변에서 확인되는 수혈은 호서지역과 동일한 양상으로 깊이 또한 20cm 내외이다. 따라서 저장공과 수혈은 보관시설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부여 송국리유적 수혈유구도 소형에 깊이가 얇고,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는 점 등을 들어 소비 직전의 단기 저장 또는 보관용으로 파악하였다. 다만 깊이가 얇은 수혈유구가 저장시설로 이용되었을 경우 지상에 노출되었다면 건조된 상태의 작물이나 물품의 보관가능성도 추정한다(김경택 외2012:44). 따라서 다양한 방식의 보관 및 저장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되며 저장의 경우 단기저장의 목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 생각된다.

외부 수혈에 보관하는 방식은 송국리단계 뿐만 아니라 이후 시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용되며, 이는 내부에 보관된 것보다 장기적인 저장방식이 반영된 것으로 파악한다(김민구 2010).

주거 구성요소에서 저장시설의 부재는 기존 주거지로 보고된 유구들 중 보관시설로서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영산강유역 주거에 있어 방형 수혈 및 내부에 노의 여부만 확인되는 유구들은 주거지로 보고되어있다. 유구는 배치에 있어서도 1기 혹은 다수가 군집되어 확인되지만 주거의 기능보다는 다른 기능으로 추정된다. 동일한 맥락에서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하나의 예시로 서섹스 블랙패치유적의 주거군의 사이에 축사시설이 확인되는 점이 참고된다(이성주 2012).

내부에 노가 확인되는 유구에 대해서는 공동체적 의례나 행사에 쓰인 취사시설, 습기 제거용 목

탄시설, 저장하기 위한 혼연 처리 시설 등 다양한 가능성을 제시하였으나 저장시설로 사용되었다면 건조 저장에 유리한단기저장용이었을 가능성이 높다(허의행 2008:70-74). 이러한 예를 적극 고려한다면 송국리문화단계에서는 주거지의 기능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거의 목적뿐만 아니라 유적의 입지환경에 따라 활용할 수 있는 주거의 배치나 자원을 이용하는 방식이 달라지며¹⁴⁾, 그 자료로서 주거지 중 저장공간만 존재하는 형태나 일부 노만 확인되는 경우로 영산강유역에서 저장시설의 부재와 함께 수렵구가 높게 확인되는 양상은 저장하기 위한 창고시설 또는 혼연처리를 위한 유구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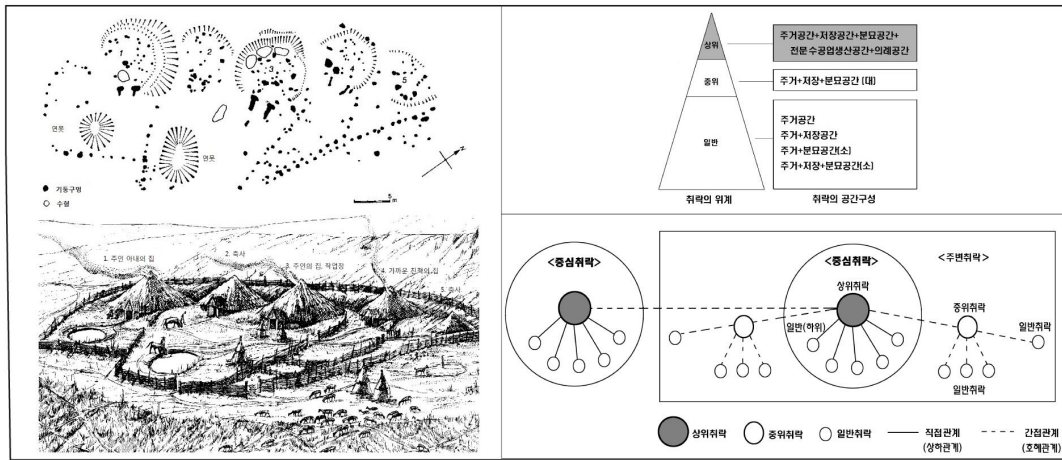


圖 7 주거 복원도(이성주 2012 재인용) / 취락의 위계와 관계모식도(이형원 2018)

전술한 주거구조 및 생계의 양상을 종합하면, 영산강유역의 주거는 기존 연구의 관점에서 접근하기에는 조금 다른 양상이라 파악된다. 특히 청동기시대 취락은 연구자에 따라 기준의 차이는 있지만, 주거와 분묘공간, 광장, 의례공간 등을 특징적인 요소로 거점취락·일반취락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본격적인 농경사회로의 진입은 농경지로서의 접근성이 중요해지며, 대규모 경작지 개발과 농경을 위한 인구의 집중화가 요구되고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 중기부터 나타나는 취락의 대규모화라고 판단한다(김승욱 2006:30). 다만, 영산강유역의 취락구조에서 특징적인 요소가 확인되는 취락은 나주 운곡동, 광주 수문유적뿐이다. 선행연구에서 청동기시대 취락은 일정한 공간내 집단간의 유기적인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이형원 2018, 강동석 2018). 호남지역의 관점에서 일부 지역에서는 중점, 거점취락의 양상은 인정할 수 있으나, 아직까지 영산강유역에서 조사된 주거군들에서는 거점취락으로 상정하기에 차별화된 특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이는 네트워크의 중심부, 지속적인 반복점유의 가능성 등 영산강유역 주거의 변천상에 있어 전기부터 후기에 이르는 양상을 면밀히 검토한 후 다른 지역과의 비교연구를 통해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14) 부정형의 주공열, 분묘군에서 확인되는 주거지 1기, 수혈에서의 불맞은 점토편 등의 양상은 가축사육, 분묘축조를 위한 임시거처, 가마나 저장시설의 가능성을 추정하기도 한다. 따라서 일반적인 주거나 구조물의 용도로 사용되기 어렵다고 생각되는 특징적인 유구는 다른 기능의 용도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V. 맺음말

그동안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는 연구는 호남의 연구시각에서 다루어지며 상대적으로 주목받지 못하였다. 이는 자료의 편중 등의 이유로 지식묘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왔기 때문이다. 최근 영산강유역의 청동기시대 자료는 타 지역과 비교·검토할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확보되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조사성과에 비해 연구가 부족했던 영산강유역 주거를 거시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돌대문토기의 초기, 점토대토기의 후기 등 아직까지 시기별 문화양상에 대한 해상도가 낮지만, 청동기시대의 흐름은 동일한 양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영산강유역은 주거형태부터 원형으로 대체되지 않으며, 호남지역 내 만경강유역, 남해안지역과는 다른 양상을 보여준다. 이는 영산강유역의 문화가 분화되는 상황과 함께 지속적으로 새로운 요소와의 접촉·통합되는 방향성으로 생각된다.

영산강유역이 포함되는 한반도 서남부지역은 고대사회의 형성과정부터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지역으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기반에는 청동기시대의 역동성과 영산강유역 문화변동이 작용했기에 그 중요성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다. 청동기시대 재조명이란 주제를 통해 고민하게 된 영산강유역 청동기사회에 대한 질문들은 앞으로의 과제로 삼고자 하며 후배를 위해 선배님들의 많은 질정 부탁드립니다.

■ 참고문헌 ■

- 한국청동기학회, 2013, 『한국청동기시대 편년』, 서경문화사.
- 김권구·공민규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3-취락-』,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 안재호·이형원편, 2016, 『청동기시대의 고고학2-편년-』, 한국고고환경연구소 학술총서12.
- 이형원, 2009, 『청동기시대 취락구조와 사회조직』, 서경문화사.
- 김규정, 2013,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연구』, 경상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권중, 2019, 「중부지방 송국리문화의 제 양상과 성격 연구」, 『한국청동기학보』 25.
- 김민구·권경숙, 2010, 「제주도 송국리문화의 석기조성과 생업경제-호남지역과의 비교-」, 『호남고고학보』 36.
- 김승옥, 2006, 청동기시대 주거지의 편년과 사회변천」, 『한국고고학보』 60.
- 고일홍, 2010, 「청동기시대 전기의 농경방식 재조명 - 화전농경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 67.
- 김범철, 2006, 「금강 중·하류역 송국리형 취락에 대한 가우고고학적 접근」, 『한국상고사학보』 51.
- , 2013, 「청동기시대 토기 용량복원 시론-호서지역 취락출토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상고사학보』 80.
- ,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가내 저장양상 변화의 의미」, 『한국상고사학보』 83.
- 김범철·안형기·송한경, 2007, 「무문토기의 용량분석 시론-충남지역 청동기시대 취락 출토품을 중심으로-」, 『야외고고학』 2.
- 김장석, 2007, 「청동기시대 취락과 사회복합과정 연구에 대한 검토」, 『호서고고학』 17.
- , 2008, 「송국리단계 저장시설의 사회경제적 의미」, 『한국고고학보』 67.
- 김장석·황재훈·김준규외 5명, 2018, 「한국 방사성탄소연대 이상연대치의 선별과 검증」, 『한국고고학보』 107.
- 강동석, 2018, 「지석묘사회의 취락패턴과 복합화 - GIS를 활용한 영산강중류역 취락패턴의 재구성」, 『한국고고학보』 109.
- 노양지, 2021, 『호서·호남지역 휴암리유형의 전개양상 연구』, 전통문화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명승렬,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중기 물질문화의 다양성 검토」, 『호서고고학』 31.
- 박성희, 2015, 「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적 분포와 지역권역」, 『고고학』 14-1.
- 박서현, 2016,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생업경제- 취락과 생업도구의 분석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3.
- 성춘택·문수균·양혜민, 2018, 「물질문화의 유형과 고고학 분석의 단위 - 한국 청동기시대 유형론을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109.
- 손준호, 2008, 「석기조성비를 통해 본 청동기시대 생업과 사회경제」, 『한국청동기학보』 3.
- 손준호, 2015, 「송국리문화의 석기 편년」, 『호서고고학』 32.
- 손준호, 2019, 「청동기시대 석기 조성비비교」, 『인문학연구』 58-4.
- 이성주, 2012, 「마을과 도시에 관한 고고학의 논의」, 『고고학』 11-2.

- 이수홍, 2014, 「청동기시대 주거생활 변화와 지역성의 사회적 의미-영남지역의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고고학보』 90.
- 이영문, 2013, 「청동기시대 편년연구의 현황과 과제」,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 이영문, 2014,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조사 성과와 연구과제」, 『호남고고학보』 47.
- 양영주, 2013, 「전북지역 전기 무문토기의 전개양상」,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 오원홍, 2018, 「탐라 이전 송국리형 주거취락의 변화 양상 : 삼양동·용담동 일대 유적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8.
- 이진민, 2004, 「중부 지역 역삼동 유형과 송국리 유형의 관계에 대한 일고찰-역삼동 유형의 하한에 주목하여」, 『한국고고학보』 54.
- 우정연, 2014,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전 - 중기 저장전략 비교연구 - 물리적·사회적 저장전략을 중심으로 -」, 『한국상고사학보』 85.
- 이종철, 2002, 「송국리형 주거지의 구조변화에 대한 시론」, 『호남고고학보』 16.
- 이종철, 2017, 「송국리형 취락의 생산과 소비 양상-개별 주거와 취락을 중심으로-」, 『호남고고학보』 57.
- 이종철, 2021, 「송국리형문화의 취락사회와 사회발전 양상」, 『한국청동기학보』 28.
- 이희경·이형원, 2016, 「원삼국~한성백제기 작물의 저장, 소비, 폐기의 일양상 - 용인 고림동유적의 사례 -」, 『한국상고사학보』 92.
- 이형원, 2012, 「중부지역 신석기~청동기시대 취락의 공간 구조와 그 의미」, 『고고학』 11-2.
- 이형원, 2018, 「청동기시대 중심취락의 지역적 양상」, 『청동기시대 송국리유적, 왜 중요한 가?』, 서울대학교박물관·중부고고학회학술대회발표자료집.
- 이홍중, 2007, 「송국리형취락의 공간배치」, 『호서고고학』 17.
- 이홍중·허의행, 2010, 「청동기시대 전기취락의 입지와 생업환경」, 『한국고고학보』 74.
- 이홍중·손준호, 2012, 「충적지 취락의 지형환경」, 『영남고고학』 63.
- 조대현·박수현, 2013, 「청동기시대 석기생산에 대한 일 고찰-중부지역 취락 출토 자료를 중심으로-」, 『호서고고학』 28.
- 천선행, 2016, 「호남지역 전기무문토기문화의 실체와 전개」, 『호서고고학』 35.
- 천선행, 2019, 「만경강유역 청동기시대 전기·중기 취락 특징과 분포양상」, 『호서고고학』 44.
- 홍밝음, 2010, 「호남지역 청동기시대 전기 주거지의 변천과정」, 『호남고고학보』 36.
- 홍밝음, 2012, 「전남지역 청동기시대 조기~전기문화의 변천과정」, 『청동기시대 광역편년을 위한 조기~전기문화 편년』, 제6회 한국청동기학회 발표자료집.
- 허의행, 2011, 「호서지역 청동기시대 후기 저장수혈의 양상과 변화」, 『영남고고학』 58.
- 황재훈·김장석·이영선외 14명, 2016, 「방사성탄소연대의 고목 효과에 대한 실험적 검토」, 『한국상고사학보』 92.
- 황재훈, 2009, 「전남지역 선송국리~송국리단계의 인구분포 변동」, 『호서고고학』 20.

- , 2015, 「청동기시대 전기 편년 연구 검토-형식 편년과 유형론, 그리고 방사성탄소연대-」, 『고고학』 14-1.
- , 2017, 「중부지역 무문토기시대 전기 사회의 동향-공렬토기의 확산과 문화변동에 주목하여-」, 『영남고고학』 78.

※ 지면관계 상 보고서 및 선행연구사는 제외하였음.